

나주시 '인구 11만 회복' 정책 박차

공공산후조리원 ·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의료시설 개선 등 주력

나주시 인구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11만 명을 넘어섰다.

나주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인구 11만 명을 달성했다.

지난 2000년 인구 11만 선이 붕괴된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나주시 인구는 1960년대 중반 인구 25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편중된 산업화에 따른 지역이탈 및 고령화 등으로 2013년 11월 8만 7천여 명으로 인구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나주 혁신도시 조성에 힘입어,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하고 대단위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면서부터 인구 유입이 가속화했다.

2014년 말 인구 9만 명을 회복한 데 이어, 2016년 4월, 10만 명을 넘어선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 유치와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 한전의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힘입어 나주시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 결과, 젊은 층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4년 말 기준 58,304명(64.3%)에서 지난해 말 71,512명(65%)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655명에서 951명으로 크게 늘며, 지역에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

나주시는 금년 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주시 11만번째 전입자인 빛가람동 김희진 씨가 강인규 나주시장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먼저 혁신도시 에너지 신기술 창업 선도도시 육성과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산업 생태계를 구축, 나주 혁신도시를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와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신축, △청년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나주 교육지원센터,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중형급 의료시설 등 건

립을 통해 출산 장려 및 안정된 양육 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상대적으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은 읍성권·영산포 등 '권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비롯해, '나주 이창지역 행복주택 건설', '금성산 나주숲체원 공원조성사업' 등에 따른 도시 활성화 전략을 꾀할 방침이다.

또, 관내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세대를 발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저출산 인식 개선과 출산 장려를 위한 인구 순회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구증대 도모할 계획이다.

강인규 시장은 "인구 11만 명 달성은 민선 6기 나주시 발전과 비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 2의 도약기를 맞아 나주가 계속 성장하여 2030년 인구 20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출산, 보육, 일자리, 기업 투자유치, 정주인프라 확충 등 인구증대와 관련된 전 분야의 적극적인 시책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구 증대 포부를 밝혔다.

/나주=서철호 기자

여수시, 주민주도 마을회의 '추진'

오는 16일 여서동서...4월 5일까지 마을 간담회

여수시가 무술년 새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존 시민과의 대화를 주민 주도 마을회의로 전환해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여서동을 시작으로 '주민주도 혁신 1번지 여수 마을회의'가 오는 4월 5일까지 27개 읍면동에서 열린다.

종전 신년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처리하던 방식이었다. 이 시민과의 대화는 소규모 민원 건의의 일반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을회의' 형식으로 변경된다.

마을회의는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이다. 민선6기 첫 번째 시도이다. 소규모 민원은 서면 제출을 통해 관리된다.

읍면동별 의제는 주민 주도 관광 활성화, 쓰레기 및 주차문제, 상가 활

성화, 나눔 문화 확산, 교통 불편 해소 방안 찾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들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섬과 농촌 관광을 주제로 주민 공동 소득창출 방안 찾기에 지혜를 모으는 것도 눈에 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결정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다"며 "주민주도형 마을자치 역량을 키워야 여수의 도시경쟁력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의 자치분권 여수선언 이후 자치분권 개편에 대한 시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수=최준열 기자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가리맛조개가 수산물 지리적표시 25호 품목으로 등록 됐다. 가리맛조개가 등록된 것은 전국 최초이다.

순천만가리맛조개, 전국 최초 '지리적표시' 등록

순천만 청정갯벌 지리적특성 · 품질 우수성 인정 받아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가리맛조개가 수산물 지리적표시 25호 품목으로 등록 됐다. 가리맛조개가 등록된 것은 전국 최초이다.

지리적표시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의 명칭 · 품질 · 특징 등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 · 제조 · 가공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다. 이것은 지역 명칭과 품질을 함께 붙여 사용하고 배타적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다. 순천시는 2016년부터 순천만가리

맛 조개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쳤고, 이번에 순천만 청정갯벌의 지리적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록이 확정 됐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고 믿을 수 있는 가리맛조개는 순천만가리맛조개'라는 공식이 성립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에서는 연간 150여톤의 가리맛조개가 생산되고, 이중 80%는 일본으로 수출되어 약 15억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조은익 기자

보성참다래 '제시 골드키위' 미국 수출

13톤 수출 상차식...미국 전역서 판매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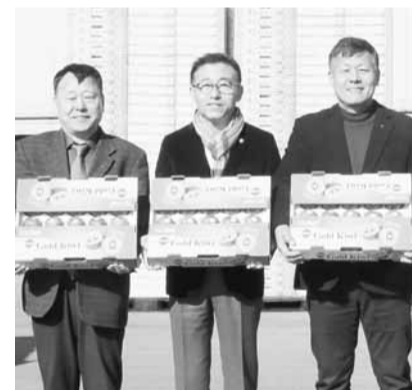
보성군은 12일 벌교농산물유통센터에서 기관단체장, 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참다래 '제시 골드키위'의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유통센터는 벌교농협과 참다래 농가가 계약 재배한 13톤의 물량을 공급받아 미국 수출길에 올랐으며, 앞으로도 총 60여톤의 참다래가 수출돼 대형마트 등 미국 전역에서 판매 예정이다.

보성군의 참다래는 320여농가가 209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4.165여톤 이상 생산되고 있다.

벌교농산물유통센터는 지난해에도 미국에 20톤의 참다래를 수출하며,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 참다래, 녹차, 단호박 등 우수 농특산물 28억 원의 수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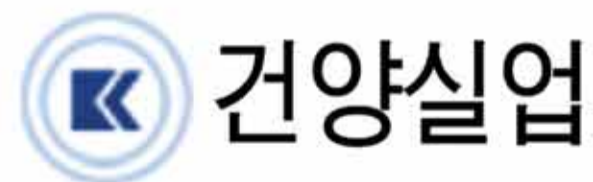
고흥 아쿠아관절 운동교실 내달 9일까지 수강생 모집

고흥군은 다음달 9일까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아쿠아(수중) 관절 운동교실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회관 수영장에서 3개월간 보건소 운동처방사와 고흥군체육회 전문수영강사의 지도로 ▶ 관절수중운동 ▶ 수중 에어로빅 ▶ 개인별 맞춤형 수중운동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으로 참여희망자는 보건소☎061-830-6672로 문의하면 된다.

의료기기의 선두주자



"신기술 개발과 최고 품질의 의료기기를 만들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건양실업은 신기술 개발과 최고 품질의 장비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항상 노력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만족과 신뢰를 위해 항상 A/S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새로운 제품개발과 기존제품들의 성능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최고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써 발돋움하겠습니다.

